

# “왜 악인들이 살아있는가?(לָמָּוֹת רָשָׁעִים יַחִיו)”에 대한 사회학적 해석 — 욥기 21:7-16을 중심으로 —

조한근\*

## 1. 서론

욥기를 읽는 대부분의 독자들은 철학과 신학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무고한 자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함’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라는 ‘신정론적 담론’이 핵심 주제라고 이해하고 있다.<sup>1)</sup> 특히 이 책은 잘 알려진 대로 인간의 고난을 인과응보 교리(the doctrine of retribution)로 해석했던 욥의 친구들과 무고한 자의 고통을 호소했던 욥의 언설(言說)로 구성되어 있다.<sup>2)</sup> 그래서 엘리바스는 대화의 시작부터 “무죄한 자가 망했던 그가 누구

\* 호서대학교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 기독교학과 구약학 부교수와 부설 평생교육원장. [hankeuncho@hanmail.net](mailto:hankeuncho@hanmail.net). 본 논문은 2022년 10월 29일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가 주관하고 “기독교학문연구회”가 주최한 “제39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재구성한 것임.

- 1) 욥기의 신정론 연구는 D. B. Burrell, *Deconstructing Theodicy: Why Job Has Nothing to Say to the Puzzle of Suffering* (Grand Rapids, MI: Brazos Press, 2008), 13-19; J. J. Kwon, *Scribal Culture and Intertextuality: Literary and Historical Relationships between Job and Deutero-Isaiah* (Tübingen: Mohr Siebeck, 2016), 42-44; D. Balfour, “Second-Personal Theodicy: Coming to Know Why God Permits Suffering by Coming to Know God Himself”, *International Journal for Philosophy of Religion* 88:3 (2020), 287-305를 참고하라. 욥기의 신정론은 행위-회복-관계 사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구자용, “우리가 항상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데, 악한 것을 또한 받지 못하겠느냐?(욥 2:10) — 욥기가 말하는 신정론에 대한 성서신학적 고찰 —”, 「구약논단」 74 (2019. 12), 191-220을 참조하라.
- 2) K. J. Dell, *The Book of Job as Sceptical Literature* (Berlin; New York: De Gruyter, 1991), 35-44; M. Peterson, et al., *Reason & Religious Belief: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Relig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191-192. 욥의 친구들은 욥이 까닭 없이

냐?”(מִי הוּא נְקִי אֲבָרָה)와 “올바른 사람들이 파괴되었던 것이 어디 있는  
 나?”(וְאֵיפֹה יְשָׁרִים נִכְחָדְרוּ) (욥 4:7)라는 수사적 질문을 통해 인과응보 교리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한다.<sup>3)</sup> 그리고 빌닷은 여기에 동조하여 “하나님이 정의  
 를 그르치겠으며, 전능자가 의를 그르치겠는가?”(הֲאֵל יַעֲוֹת מִשְׁפָּט וְאִם-שֹׁדֵדִי) (욥  
 8:3)라는 물음을 통해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이 정한 법과 윤리  
 적 원칙에 세워졌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sup>4)</sup> 또한, 소발 역시 죄를 멀리하는  
 자가 누리는 평안한 삶(욥 11:14-19)과 ‘악인들’(רְשָׁעִים)<sup>5)</sup>은 멸망한다(욥  
 11:20)는 논리로 결국 전능자의 세상 다스림에 대한 섭리가 인과응보의 원  
 리에 있음을 시사한다.<sup>6)</sup> 이렇듯 욥의 친구들은 ‘고통과 번영’을 인간사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징벌과 보상에 대한 ‘인과 관계’로 해석했다.<sup>7)</sup>

친구들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유 없이 자신에게 닥친 고통  
 이 악인에게 내려지는 형벌과 관련이 없음을 주장한다. 그래서 이 책의 첫  
 머리 마지막에 언급된 침묵이 끝나고, 욥은 운문의 시작에서 자신이 당하  
 는 고통에 대해 입을 열어 탄원하기 시작한다. 이 탄원에서 의문사 ‘라  
 마’(לָמָּה)와 ‘마두아’(מָדוּא)의 수사적 질문을 통해 욥은 자신에게 닥친 이유  
 없는 고통에 대해 강하게 항변하고 있다.<sup>8)</sup> 이와 같은 욥의 항변은 엘리바

---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 전통적인 종교적 수단으로 회개와 자기  
 성찰을 제안한다. S. Kivistö and S. Pihlström, “Theodicies as Failures of Recognition”, J. G.  
 Hernandez, ed., *Theodicy* (Basel: MDPI, 2018), 103-110.

- 3) 토마스 아퀴나스(T. Aquinas)는 엘리바스의 인과응보 사상이 “인간의 현세적 삶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E. Stump, *Aquinas*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3),  
 461.
- 4) 빌닷의 인과응보는 엘리후의 언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정의를 굽히지 않는  
 다’는 것이다(욥 34:10하반, 12). 그래서 엘리후는 “왜냐하면 그가 사람의 행위에 따라 그에게  
 보상하고, 그가 사람의 길대로 그에게 얻게 한다”(כִּי פִעֵל אֱדָם יִשְׁלַם לוֹ וְכִאֲרָה אִישׁ יִמְצְאוֹ) (욥  
 34:11)라고 하므로 인과응보 원칙에 엄격히 적용한다.
- 5) 욥의 친구들은 악을 철학적 의미로 해석하여 소멸할 수밖에 없는 일시적인 것으로 규정하였  
 다. 뉴섬(C. A. Newsom)은 친구들이 악인에 대하여 윤리적인 의미에서 초점을 맞추어 해석  
 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C. A. Newsom, *The Book of Job: A Contest of Moral  
 Imagina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26-129.
- 6) 소발 역시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인과응보적 정의만이 하나님의 세상 다스림의 원리라고 보  
 았다. C. F. Keil and F. Delitzsch, *Job,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 4 (Grand  
 Rapids, MI: Eerdmans, 1976), 189-190.
- 7) 임민균, “고통 속에서 발견하는 희망에 대한 신학적 성찰: 욥기와 몰트만의 신학을 중심으  
 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 (2020. 9), 638-647.
- 8) 의문사 ‘라마’(לָמָּה)는 욥 3장에서 11절과 20절에 각각 2회 사용되었고, ‘마두아’(מָדוּא)는  
 3:12에서 사용되는데 두 용례 모두 의미상 “왜”로 번역할 수 있다. D. J. A. Clines, ed., *The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vol. 5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11), 145-146; S.  
 E. Balentine, *Job*, Smyth & Helwys Bible Commentary (Macon, GA: Smyth & Helwys, 2006).  
 88-100.

스의 첫 번째 언설에 대한 대답에서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너희는 나에게 깨닫게 하라”(욥 6:24)는 물음을 통해 징벌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욥은 사법적 이미지를 담고 있는 “사실을 내가 준비했다”(מִשְׁפָּטִי מוֹשְׁפֵטִי, 욥 13:18)와 법정 증인의 부재를 의미하는 “또한 지금 보라 나의 증인이 하늘에 있다”(גַּם-עַתָּה הִנְהוּ בְּשָׁמַיִם עֵדַי), 욥 16:19)라고 기술하므로 자신의 무고함을 법률적 증거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다.<sup>9)</sup>

이처럼 친구들과 욥은 고통의 원인을 ‘악인이 당하는 형벌의 결과인가?’ 아니면 이유 없는 ‘무고한 자의 시련인가?’라는 질문에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sup>10)</sup> 친구들은 고통을 죄의 결과로 인식하여 악인에게 주어질 징벌로 보았다.<sup>11)</sup> 하지만 욥은 무고한 자의 고난과 함께 사회 구조적 시각에서 악인이 누리는 번영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욥기가 ‘기록될 당시’<sup>12)</sup> 무고한 자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함’ 사이에는 분리할 수 없는 사회적 관계가 있다. 특히 구약성서에 나타난 악인은 탐욕과 착취의 주체로 가난한 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자로 묘사되기도 한다.<sup>13)</sup> 이에 대해 욥기는 악인을 사회적 측면에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탐욕과 착취가 범사회적으로 무자비하게

9) “나의 증인이 하늘에 있다(욥 16:19)”와 사법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야훼는 나의 증인이다(느 11:7)”라는 두 문장은 평행으로 본다. R. Albertz and R. Schmitt, *Family and Household Religion in Ancient Israel and the Levant*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12), 311-312.

10) 욥기는 모든 고난이 악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며 모든 부유함이 의로운 삶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말한다. J. H. Walton, *Ancient Israelite Literature in Its Cultural Context: A Survey of Parallels Between Biblical and Ancient Near Eastern Texts*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1990), 179-187.

11)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신명기 신학의 핵심 주제와 일치한다. S. Cook, “A Reading of Job as a Theatrical Work: Challenging a Retributive Deuteronomistic Theodicy”, *Literature & Aesthetics* 24:2 (2014), 39-62; N. C. Habel, “The Role of Elihu in the Design of the Book of Job”, W. B. Barrick and J. R. Spencer, eds., *In the Shelter of Elyon* (Sheffield: JSOT Press, 1984), 81-98.

12) 필자는 욥기의 기록 연대를 포로 후기로 본다. 이 견해는 조한근, “그 땅에서 쫓겨난 자(נִכְזָרִים מִן-הָאָרֶץ)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 욥기 30:1~8을 중심으로 —”, 『구약논단』 82 (2021. 12), 84-117의 각주 2)를 참조하라. H. Gese, “Wisdom Literature in the Persian period”, W. D. Davies and L. Finkelstein,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Judaism*, vol. 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189-190. 루이스 핑켈스타인(L. Finkelstein)은 욥기가 우스 땅(land of Uz)의 유목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기원전 4세기경 예루살렘에서 기원했다고 주장한다. L. Finkelstein, *The Pharisees: The Sociological Background of Their Faith*, vol. 1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of America, 1966), 231; K. J. Dell, *The Book of Job as Sceptical Literature*, 167에서 재인용.

13) 예언서는 악인을 관료로 묘사하기도 하며(사 3:11; 5:23; 14:5), 경제적 이익을 위한 탐욕스러운 부자로 묘사하기도 한다(렘 5:26; 미 6:10).

이루어졌음을 지적한다. 더욱이 욥기 21:7-16에 나타난 악인들은 현세에 안락한 삶을 살아가다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로 묘사되어 있다(욥 21:13). 즉 이 본문에 나타난 “왜 악인들이 살아있는가?”(לָמָּה יִשְׁׁרָיִם אֲשֶׁר־עָשׂוּ, 욥 21:7)라는 수사적 질문은 악인의 불의한 행위가 명백히 드러나지만 아무런 책임이나 처벌을 받지 않는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sup>14)</sup> 이것은 대부분의 지혜문학에서 교훈하는 악인에 대한 평가와는 매우 다른 내용이다.<sup>15)</sup>

이런 측면에서 욥기를 이해하는데 사회적 고통의 원인을 제공했던 ‘악인’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필자는 그동안 욥기 연구의 주제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악인에 관해 사회학적 접근을 통해 본문을 재해석하고자 한다. 특히 이들의 반사회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본문이 제시하는 ‘그들이 생존한다’(יָחִי)라는 용례를 통해 ‘번영’(טוֹב)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고찰하고, 함께 사용된 “그들이 장수했다”라고 번역된 ‘아테쿠’(עָטָו)와 “그들이 강해졌다”라는 ‘가베루’(גָּבְרוּ)가 어떻게 반영되어 사회적 영향력을 끼쳤는지 짚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본문이 갖는 정치, 경제적 의미들을 찾고 욥기 전체에 어떻게 수용하여 사회학적 정보를 제공하는지 규명하고, 재조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2. 본문 분석

### 2.1. ‘라샤(רָשָׁא)’에 대한 욥기의 이해

“악인”으로 번역된 ‘라샤(רָשָׁא)’는 구약성서에 총 266회 언급되었는데 시편과 잠언에만 무려 156회 사용되어 그 비율이 59% 이상을 차지한다. 그런데 두 책에 기술된 רָשָׁא는 율법서나 예언서와 다르게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할 사람뿐만 아니라 확장된 의미로 ‘경건하지 못한 자’도 포함한다.<sup>16)</sup> 하지만 두 책과 같은 운문체로 기록된 욥기 역시 רָשָׁא가 구약성서에서

14) 알베르츠(R. Albertz)는 욥 21장이 페르시아 시대의 사회적 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R. Albertz, *Israel in Exile: The History and Literature of the Sixth Century B.C.E.*, D. Green, trans.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3), 240.

15) 잠언은 의인과 악인의 운명을 대조적으로 묘사하여 인과응보 법칙의 타당성을 설명한다. R. N. Whybray,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Proverbs*, JSOT Supplement Series 168 (Sheffield: JSOT Press, 1994), 62-96.

16) 악인이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자로 묘사된 시편의 본문은 10:12-18; 37:14; 82:2-4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출 22:22; 23:6; 신 24:14, 17 참조). 특히 시 10편의 경우 악인들의 압제에서 가난한 자들을 구원해 달라는 탄원의 형식으

세 번째로 많은 26회나 기록되어 있으나 선과 악에 대한 단순한 비교보다 사회적 기능과 행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17)</sup> 그래서 욥기에 묘사된 רָשָׁע는 운문체의 시작부터 그 사용 용례가 매우 독특한데 ‘임금들’(מְלָכִים), ‘모사’(עֵצִי), ‘관료들’(שָׂרִים) 다음 순으로 기술되어 있다(욥 3:14-15).<sup>18)</sup> 특히 시편과 잠언에서는 일부를 제외하고 악인을 ‘탄원자와의 원수 관계’<sup>19)</sup>로만 묘사하거나 ‘의인’(צַדִּיק)과 단순하게 평행을 이루어 기술한 경우가 대부분이다.<sup>20)</sup> 반면 욥기는 악인에 대해 ‘세상을 소란’(רָגַז)하게 하는 존재로서 ‘힘없는 자’(כֹּחַ יְנִיעִי)와 평행을 이를 뿐만 아니라, ‘포로 된 자들과 감독자’(גִּבּוֹרֵי אֲסִירִים), ‘작은 자와 큰 자’(קָטָן וְגָדוֹל) 그리고 ‘주인과 노예’(אָדוֹן עֶבֶד)가 평행을 이루는 문장들에 포함되어 있다(욥 3:17-19).

더욱이 욥기는 『개역개정』에서 “권세 있는 자”와 “존귀한 자”로 각각 번역된 ‘이쉬 제로아(רוּעֵ אִישׁ / 팔의 사람)’와 ‘네수 과님(פְּנִים נְשׂוּא / 얼굴이 높여진 자)’이 단순히 “토지”로만 번역된 ‘하아레츠(הָאָרֶץ)’를 소유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욥 22:8).<sup>22)</sup> 하지만 이것은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세력을 확장했던 탐욕스러운 악인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이권과

로 구성되어 있다. 이일레, “가난한 자의 탄원 속에 나타나는 신정론 이해: 시편 10편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82 (2021. 12), 187-214.

17) 시 73:3-12는 욥 21:7-16까지에서 제시하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문학적 묘사가 매우 유사한 부분도 있다. W. Kynes, *My Psalm Has Turned into Weeping: Job's Dialogue with the Psalms* (Berlin: De Gruyter, 2012), 161-175.

18) 페르시아 시대의 계급제도(hierarchy)로 본다. J. L. Crenshaw, “Job, Book of”, D. N. Freedman, ed.,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3 (New York: Doubleday, 1992), 863; 안근조, 『지혜 말씀으로 읽는 욥기』 (서울: 한들출판사, 2007), 20에서 재인용. 클라인즈(D. J. A. Clines)도 임금, 모사, 관료에 대한 표현은 스 7:28과 8:27 그리고 사 19:11을 근거로 페르시아적 배경이라고 제안한다. D. J. A. Clines, *Job 1-20*, Word Biblical Commentary 17 (Dallas, TX: Word Books, 1989), 94.

19) 시편에서 악인을 탄원자의 원수로 묘사한 부분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가 붙은 개인탄원시가 대체로 그렇다(시 3:7; 7:9; 17:9, 13; 26:5; 28:3; 31:17; 36:11; 55:3 참조). 특히 개인탄원시에 등장하는 악인들은 포로 후기에 형성된 ‘경건한 자들’로 묘사된 ‘가난한 자들’과 대비되는 인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 내용은 이일레, “개인 탄원시에 나타나는 가난한 자들의 탄원 연구”, 『성경원문연구』 50 (2022. 4), 37-59를 참조하라.

20) 잠 3:33; 10:3, 6, 7, 25, 27, 28, 30; 12:21; 14:11을 참조하라.

21) רָגַז의 어근 רָגַז는 감정적 동요를 나타내는 것으로 통치자가 온 땅을 두렵게 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진노로 백성들이 느끼는 무서운 공포를 의미한다(사 14:16; 욥 2:11; 사 23:11 참조). 하틀리(J. E. Hartley)는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본다. J. E. Hartley, *The Book of Job*,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 Eerdmans, 1988), 98.

22) 고디스(R. Gordis)는 “토지는 권력자들만 소유해야 한다”는 산헤드린(Sanhedrin 58b)과 연결하여 이 구절을 해석하고 있다. R. Gordis, *The Book of Job: Commentary, New Translation, Special Studies*, Moreshet Series 2 (New York: The Jewish Theological Seminary of America, 2011), 245-246.

관련된 행위들이 나타나는데 주로 가난한 자들을 대상으로 수탈과 착취를 일삼는 것들이었다. 특히 악인들은 율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한 가난한 자들을 대상으로 저당권을 파렴치하게 행사하였으며(욥 22:6; 24:9하반), 가혹한 노역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기도 했다(욥 24:10, 11). 그러므로 필자는 악인을 정치와 경제, 두 가지 측면에서 당시 사회를 지배하려는 세력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이런 특징으로 미루어 보아 עֲשָׂרָה는 권력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유력자임이 틀림없다.<sup>23)</sup>

## 2.2. 구조(욥 21:7-16)

욥기 21:7-16은 “왜냐하면 악인들이 기뻐하는 외침은 잠시며,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כִּי רִנְּתָה רְשָׁעִים מִקְרוֹב וְשִׂמְחַת חָפֵץ עֲרִירָה) (욥 20:5)라는 소발의 진술과는 달리 지속되는 악인의 번영을 기술한 것이다.<sup>24)</sup> 본문은 12절을 중심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심판의 부재가 악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욥의 관점에서 묘사한 것이다. 전반부는 8절에서 11절까지로 전능자의 심판 부재를 통해 악인이 번영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후반부는 13절부터 15절까지 악인에 대한 심판 부재가 낳은 결과 등을 번영과 연동하여 이상적인 삶과 죽음으로 묘사한다. 특히 이들은 선한 자와 악인을 구분하는 구약성서의 전통적 기준인 ‘전능자와의 계약관계’를 부정하므로 자신이 악인임을 드러내고 있다 (욥 21:13-14).<sup>25)</sup>

전체 구조는 서론인 7절과 결론인 16절이 본문을 감싸며, 악인의 현재 모습을 수사적 고발의 형식을 취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문은 악인들의 심판 부재의 상황과 결과라는 두 가지 요소가 반영된 ‘교차 대구’(Chiasmus) 구조를 이루고 있다.

23) 알베르츠는 악인을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들이며, 정치적으로는 귀족들이라고 정의한다. R. Albertz, *A History of Israelite Religion in the Old Testament Period: Volume 2: From the Exile to the Maccabees*, J. S. Bowden, tran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4), 499-500.

24) A. Pelham, *Contested Creations in the Book of Job*, Biblical Interpretation Series 113 (Leiden; Boston: Brill, 2012), 65.

25) 하나님을 고의로 거부하는 자들이다. S. J. Vicchio, *The Book of Job: A History of Interpretation and a Commentary* (Eugene, OR: Wipf & Stock, 2020), 162; J. P. Fokkeman, *The Book of Job in Form: A Literary Translation with Commentary*, *Studia Semitica Neerlandica* 58 (Leiden; Boston: Brill, 2012), 249.

- A. 악인의 상황 설명 (7절)
  - B. 심판의 부재 - 번영의 상황 (8-11절)
  - C. 번영의 상태 (12절)
  - B'. 심판의 부재 - 번영의 결과 (13-15절)
  - A'. 악인의 상황 설명 (16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반부는 악인의 번영이 대물림되고, 두려움이 없으며,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sup>26)</sup> 특히 이 부분은 악인의 자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번영이 세습되는 상황을 ‘확고하다’라는 ‘쿤(כּוֹן)’의 분사 니팔형인 ‘나콘(נִכּוֹן)’을 사용하여 자손들에게도 사회적 영향력이 대물림됨을 암시한다. 그래서 נִכּוֹן은 ‘그들의 씨’(זַרְעָם)와 ‘그들의 자손들’(בְּנֵי אֲחֵיהֶם)을 주어로 취하므로 ‘그들의 씨 … 그들의 자손들이 … 확고해져 있다’로 해석되며 아울러 전치사 ‘עַם(임)’에 접미사 ׀을 붙인 ‘עַמָּם(임맘)’을 통해 자녀들이 누리는 확고한 번영이 부모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욥 21:8). 그리고 이 상황은 다시 “그들의 아이들이 춤을 출 것이다”(욥 21:11하반)라고 언급하므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더욱 부각시켜 안정적인 삶을 강조한다.<sup>27)</sup> 또한, 이들이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욥 21:9)과 둘째, 계속해서 재산이 증식되었기 때문이다(욥 21:10). 특히 중심이 되는 12절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에 ‘세 가지 악기’<sup>28)</sup>를 사용하므로 악인들의 극대화된 번영을 묘사한다.<sup>29)</sup>

후반부는 악인의 삶과 죽음을 두 가지로 묘사하는데 첫째 “번영”을 의미하는 ‘토브(טוֹב)’를 통해 악인들의 형통함을 기술하고 있다(욥 21:13상반). 둘째, 그들은 장수하며 고통이나 질병 없이 ‘한순간에’(בְּרִגְעָה)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 이 번영은 전능자를 통해 세상 다스림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

26) D. Mathewson, *Death and Survival in the Book of Job* (New York; London: T&T Clark, 2006), 114-115.

27) 악인의 자녀들은 부를 바탕으로 절대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양처럼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다. 이처럼 평화로운 모습은 걸치레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아이들의 기쁨을 강조하며 “그들이 춤을 출 것이다”라고 묘사한다.

28) 마빈 포프(M. H. Pope)는 “세 가지 악기”인 ‘토프(תוף/소고)’와 ‘킨노르(כִּנּוֹר/수금)’ 그리고 ‘우가브(עוגב/피리)’의 연주와 함께 곁들여진 가무가 바알의 제의 예식과 관련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M. H. Pope, *Job,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82), 158.

29) 친구들은 욥의 주장과는 대조적으로 악인의 가문이 끊어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욥 18:14-15, 19; 20:28 참조). 뉴섬은 악인의 번영이 일종의 패러디로 시 10편과 73편을 연결하여 설정했다고 제안한다. C. A. Newsom, *The Book of Job*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162.

벌의 법칙과 무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더욱이 이들은 “당신의 길에 대한 앎을 … 앎는다”(רַעַת דְּרַכְיָךְ לֹא, 욥 21:15)<sup>30</sup>라고 함으로 공동체가 추구하는 신앙과 사회 규범을 무시하기도 한다.<sup>31</sup> 그러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율법이 규정한 야훼의 절대적 명령인 “야훼를 경외하라”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32</sup>

결론인 16절은 “הֵן לֹא בְיָדָם טוֹבָם עֲצַת רְשָׁעִים רַחֲקָה מִנִּי”를 “보라, 그들의 손안에 그들의 번영이 있지 않으며, 악인들의 계획은 나에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이 문장은 전후 맥락을 비교할 때 해석상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sup>33</sup> 그런데 ‘헨(הֵן)’은 ‘가정’으로<sup>34</sup> “그들의 손안에 번영이 없다고 가정하면”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sup>35</sup> 이것은 욥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악인들의 번영이 자신들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악인들의 불의한 삶이 욥 자신의 삶과 다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16절은 7절에서 악인의 번영에 대한 수사적 물음에 대한 욥의 대답이며 이 본문에 문학적 구조의 결론이다.

### 3. 정치적 상황

욥기는 악인에 대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자로 묘사한다. 운문의 두 번째 대화 사이클에서 악인이 전능자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가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할 것이다”(אֶל-שָׁמַיִ' יִתְנַבֵּר)라고 기술하고

30) 코엘(J. L. Koole)에 따르면 욥 21:14의 ‘당신을 아는 길’(רַעַת דְּרַכְיָךְ)과 사 58:2상반의 ‘나를 아는 길’(רַעַת דְּרַכִּי)은 같은 의미로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리킨다. J. L. Koole, *Isaiah III: Volume 3 / Isaiah 56-66, Histor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Leuven: Peeters, 2001), 125.

31) 악인들은 ‘주의 율법을 버린 자들’로 묘사되기도 한다(시 119:53 참조).

32) 이스라엘이 야훼와 맺은 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신 26:17; 28:9; 30:16 참조). D. L. Christensen, *Deuteronomy 21:10-34:12, Word Biblical Commentary 6B* (Nashville: Thomas Nelson, 2002), 646.

33) 필자는 “그들의 손안에 그들의 번영이 있지 않다”(욥 21:16상반)에 대해 “그가 좋은 것을 그들의 집에 채웠다”(הוּא מְלֵא בְּתֵיהֶם טוֹב, 22:18)라는 구문을 참고해서 번역해야 한다고 본다.

34) F. Brown, *The New Brown-Driver-Briggs-Gesenius Hebrew and English Lexicon* (Peabody, MA: Hendrickson, 1961), 243.

35) 이 문장은 의문사 ‘하(ה)’를 추가하여 ‘헨 할로(הֵן הֲלֹ)로 재구성하여 “그들의 번영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않느냐?”로 읽기도 한다. D. J. A. Clines, *Job, 510*을 참조하라. 또 다른 경우 부정어 לֹא를 제거하여 “보라 그들의 번영이 그들의 손안에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S. J. Vicchio, *The Book of Job*, 162.



있기 때문이다(욥 15:25하반). 그런데 본문은 영웅적 태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자신의 ‘강함’을 보이기 위한 용례로 ‘가바르(גָּבַר/강하다)’의 재귀형 ‘이트가바르(יִתְגַּבֵּר)’를 사용하고 있다.<sup>36)</sup> 더욱이 이와 같은 악인의 יִתְגַּבֵּר에 따른 영웅적 묘사는 전후(前後) 문맥에 기술된 ‘전사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나타 야도(יָדָה ... נָטָה/그의 손을 폈다)’(욥 15:25상반)<sup>37)</sup>와 전능자에게 오만한 태도를 보이며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의미를 담고 있는 ‘베차바르(בְּצַבָּאר/목으로 혹은 목덜미로)’(욥 15:26상반)를<sup>38)</sup> 사용하여 강함을 더욱 부각시킨다. 이러한 악인에 대한 해석은 화자인 엘리바스의 신앙적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지만, 전능자에게 도전할 만큼 ‘강한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트가바르(יִתְגַּבֵּר)’는 악인의 권력 지향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용어로 볼 수 있는데, 세력이 “강하다”라는 ‘가베루(גָּבְרוּ)’와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욥기 21:7하반에 사용된 ‘가베루(גָּבְרוּ)’는 정치적 영웅화로 힘을 과시하는 악인의 사회적 위치를 묘사한 것이다.

또한, 욥기는 “압제자”로 번역된 명사형 ‘아리츠(עֲרִיצִי)’를 악인과 같은 용례로 사용하기도 한다(욥 6:23).<sup>39)</sup> 이들은 자신의 강력한 힘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무자비한 폭군의 이미지를 갖기도 한다.<sup>40)</sup> 그런데 예언서에서는 이들의 횡포가 법정 판결을 왜곡시켜 백성들을 억울하게 하였다고 고발한다(사 29:21; 암 5:12). 특히 이사야 29:21하반에서 사용된 ‘발토후(בְּתוּהוּ)’는 『개역개정』에서 “헛된 일로”로 번역하였지만 ‘황무지로’(into wasteland)를 의미하기도 한다.<sup>41)</sup> 그래서 이 구문은 압제자들에 의해 “의인을 황무지로 밀어내다”<sup>42)</sup>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욥기 역시 악인들을 사회적 불의의 주체와 압제자로 묘사하는데 이들을

36) ‘이트가바르(יִתְגַּבֵּר)’은 “영웅적 태도를 유지하다” 혹은 “영웅 놀이를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N. C. Habel, *The Book of Job*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5), 259; C. F. Keil and F. Delitzsch, *Job*, 264-266.

37) “יָדָה ... נָטָה” 구문은 인간이 전능자를 대적하기 위한 용례로 쓰인 경우는 욥 15:25상반을 제외한 다른 본문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손을 폈다”라는 구문은 야훼의 구원(출 6:6; 신 4:34; 5:15; 시 136:12)과 심판(사 5:25; 23:11; 겔 6:14; 14:19; 16:27; 25:7, 13, 16; 35:3; 습 1:4; 2:13; 11:13)에 대해서만 쓰인다. D. J. A. Clines, *Job*, 358-359.

38) J. Gray, *The Book of Job*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10), 243; M. H. Pope, *Job*, 118.

39) K. Kopfsstein, “עֲרִיצִי”, G. J. Botterweck, H. Ringgren, and H.-J. Fabry, eds., *TDOT*, vol. XI (Grand Rapids, MI: Eerdmans, 2001), 376-378.

40) 이사야의 묵시에서는 עֲרִיצִי가 성벽을 공격하는 군대(사 25:3-4)로, 제2 이사야에서는 승리한 용사(사 49:24-26)로 묘사된 것으로 보아 바벨론의 침략과 폭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41) ‘발토후(בְּתוּהוּ)’를 “황무지로”라고 사용한 경우는 신 32:10; 시 107:40; 욥 6:18; 12:24를 참조하라. D. J. A. Clines, *The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vol. 5, 592-593.

42) J. D. W. Watts, *Isaiah 1-33*, Word Biblical Commentary 24 (Waco: Word Books, 1985), 388.

‘귀족’(גֵּבִיר)이라고 언급한다(욥 21:28). 악인들은 “재판관들의 얼굴이 가려진다”(פְּנֵי שֹפְטֵיהֶם יִכְסֶה, 욥 9:24하반)라는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정 소송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sup>43)</sup> 이것은 당시 사회가 도덕성에 대한 개념이 부재하고 정의가 결여되어, 가난한 자들의 법정 소송을 원천적으로 봉쇄했음을 가리킨다.<sup>44)</sup> 또한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길에서부터 밀어낸다”(יָטוּ אֲבוֹנִים מִדֶּרֶךְ, 욥 24:4상반)라고 묘사하므로 악인들은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폭력적 위협을 행사하는 세력으로 등장한다.<sup>45)</sup> 이 구문 역시 가난한 자들이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옆으로 미는’ 물리적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압제자들은 법정 소송을 통해 가난한 자들을 학대의 수단으로 삼아 자산을 갈취했는데 주로 그 대상은 토지였다(욥 9:24상반; 20:19; 22:8). 더욱이 욥기에 언급된 “그들이 경계표들을 옮긴다”(יְשִׁיבוּ גְבֻלֹתַי)라는 것은(욥 24:2) ‘타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거나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한’ 히브리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sup>46)</sup> 결국, 악인들에 의해 토지를 빼앗긴 가난한 자들은 공동체에서 추방당하여 ‘떠도는 자들’로 전락하고 말았다(욥 24:4하반, 5).<sup>47)</sup> 그런데 이들은 기근이 가장 심각한 ‘사막의 황무지’에 거주하므로 생존권을 위협받았다(욥 30:3).<sup>48)</sup> 이렇게 추방당하여 사막에 거주하는 자들을 『개역개정』에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라고 번역하여 ‘니케우 민-하아레즈(נִכְאוּ מִן-הָאָרֶץ)’라고 지칭한다(욥 30:8하반).<sup>49)</sup>

43) 이스라엘의 사회체계는 정치와 사법 운영권을 각각 분리하고 있다. 신 1:15와 1:16-17을 비교하라.

44) H. van Loon, “But Man is Born to Trouble ... Metaphors in the Discussion on Hope and Consolation in Job 3-31”, Ph.D. Dissertation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2017), 105.

45) R. Gordis, *The Book of Job: Commentary, New Translation, Special Studies*, 265.

46) 토지법에 대한 규정은 레 25:23; 신 19:14; 27:17에 기술하고 있다. 왕상 21:3; 잠 22:28을 참조하라. 신명기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토지 소유에 대한 규범을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통해 기술하고 있다. 즉 ‘조상이 유산으로 물려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야훼가 금지한다.’ P. T. Cronauer, *The Stories about Naboth the Jezreelite: A Source, Composition, and Redaction Investigation of 1 Kings 21 and Passages in 2Kings 9* (New York: T&T Clark, 2005), 117.

47) 공동체에서 추방당하여 ‘떠도는 자들’을 ‘광야의 야생 나귀들’(פָּרָאִים בְּמִדְבָּר)로 비유하므로 공동체와 융화될 수 없는 존재로 낙인찍었다.

48) 욥 30:3은 황무지인 사막을 ‘메마른 땅’을 의미하는 ‘갈무드(גַּלְמוּד)’, ‘가뭇의 땅’으로 해석된 ‘찌야(צִיָּא)’와 ‘황무지와 폐허’로 번역할 수 있는 ‘쇼아 우메쇼아(שׂוּאָה וּמִשׂוּאָה)’ 등의 용례를 사용한다. 조한근, “그 땅에서 쫓겨난 자(נִכְאוּ מִן-הָאָרֶץ)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 욥기 30: 1~8을 중심으로 —”를 참조하라.

49) 이들은 공동체에서 추방당한 자들이다. A. R. Ceresko, *Job 29-31 in the Light of Northwest Semitic*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80), 56-57. 욥 30:8은 “고토에서 쫓겨난 자” 외에

결국, 악인들은 히브리인들에게 제의적 규범과 사회법에 대한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는 “주의 도리”로 번역된 ‘다아트 데라케카(דְּרָכֵי הַיְיָ/당신의 길들의 지식)’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사회적 위치에 있었다(욥 21:14). 더욱이 필자가 이미 언급한 대로 “권세 있는 자”와 “존귀한 자”로 각각 번역된 ‘이쉬 제로아(רוּעֵ אִישׁ /팔의 사람)’와 ‘네수 파님(נְשׂוּא פָּנִים/얼굴이 높여진 자)’들이 갖가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토지(הָאָרֶץ)’를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전통적인 히브리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이다(욥 22:8). 그러므로 사회를 장악하고 백성들을 수탈하여 번영을 이룬 권력자에 대해 “왜 또한 그들의 힘이 강해졌는가?”(מַדּוּעַ ... נִמְנָבְרוּ הוּל) (욥 21:7하반)<sup>50</sup>라는 욥의 수사적 질문은 당시 정치적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4. 경제적 상황

욥기는 악인을 온갖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자들로 묘사한다. 그래서 그들의 경제적 부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 “왜냐하면 기름으로 그의 얼굴을 닦았으며, 허리에 지방이 끼었다”(כִּי־כִסָּה פָּנָיו בְּחֶלְבֹו וַיַּעַשׂ פִּימָה עֲלֵי־כֶסֶל)라고 기술한다(욥 15:27).<sup>51</sup> 이와 같은 표현은 가난과 궁핍으로 굶주림을 겪고 있는 상황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영양 상태가 좋은 모습을 통해 번영의 증거를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기욤(A. Guillaume)은 『개역개정』에서 “장수하며”라고 번역된 ‘아테쿠(עֲתָקוּ)’를 “그들이 부유하다”로 해석하기를 제안한다(욥 21:7하반).<sup>52</sup> ‘부유’를 의미하는 עֲתָקוּ는 본문 안에서 악인

두 가지 추가적 묘사가 있는데 ‘어리석은 자의 자식’(בְּנֵי־נֶבֶל)과 ‘이름 없는 자의 자식’(בְּלִי־שֵׁם)으로도 묘사한다. S. E. Balentine, *Job*, 453-454. 고디스는 이들이 사회적으로 가장 천한 계급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R. Gordis, *The Book of Job: Commentary, New Translation, Special Studies*, 332. 보스(J. Boss)는 이들이 ‘공동체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주장한다. J. Boss, *Human Consciousness of God in the Book of Job* (New York: T&T Clark, 2010), 150.

50) 이 구문은 토지를 소유한 ‘지주 귀족’(חֵיל נְבוֹר)이라는 일반문구를 상기시킨다. J. E. Hartley, *The Book of Job*, 313.

51) 시편은 악인의 외형적인 모습을 “그들의 눈은 살이 찌서 빠져나왔다”(시 73:7상반)라고 묘사하는데 부유한 삶을 의미한다. 예레미야서에서 “살지고 윤택하다(렘 5:28상반)”라고 묘사한 악인의 모습은 가난한 자를 대상으로 한 왜곡된 법정 소송을 통해 얻어진 경제적 번영을 의미한다. R. P. Carroll, *The Book of Jeremiah, Old Testament Library* (London: SCM, 1986), 189.

52) 기욤(A. Guillaume)은 ‘아테쿠(עֲתָקוּ)’가 ‘아랍어에서 동사로 “번영하다, 번창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때로 히브리어에서도 “부”를 의미하는 용례로 사용되었다”라고 제시

들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그들의 집들은 두려움으로부터 평안하다”(שְׁלוֹמָם מִפְּחָד, 욥 21:9상반)와 “그의 황소가 번식하고 … 암소가 새끼를 낳는다”(שׁוֹרוֹ עֵבֶר … הַבָּלֶט פָּרְחוּ)라는 비유로 설명된다.<sup>53)</sup> 이것은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한 삶이 경제적 번영에서 비롯되었음을 분명하게 기술한 것이다. 또한, 본문은 “즐기며”로 번역된 ‘이스메후(אִשְׁמְחוּ)’가 미완료 동사로 쓰인 것으로 보아 번영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암시한다(욥 21:12). 이와 같은 악인의 번영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욥기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첫째, 악인들은 고대 이스라엘의 자급 경제에 기본단위였던 토지와 그 부속물들을 강제로 갈취하였다(욥 24:2-3). 이 토지로는 경작용 농지를 일구어 식량과 기호 식품을 생산(욥 24:6)했을 뿐만 아니라 주거용 가옥을 짓고(욥 20:19) 기근에 대비하여 소규모 가축도 길렀다(욥 24:2하반).<sup>54)</sup> 더욱이 나귀나 소는 농사에 꼭 필요한 가축으로 짐을 나르거나 밭을 가는 중요한 수단이었다(욥 24:3).<sup>55)</sup> 그런데 악인들은 식량 생산의 기본단위인 농지와 그에 필요한 가축들을 강제로 수용하므로 가난한 농민들의 생존 기반을 무너뜨렸다. 이것은 곧 악인들이 토지를 독점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sup>56)</sup>

둘째, 악인들은 과도하게 저당권을 남용하여 부를 쌓았다. 이들은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율법이 금지한 ‘가난한 자의 옷’과 같은 물품까지 빼앗음으로(욥 24:9하반)<sup>57)</sup> 가난한 자들이 헐벗은 몸으로 추운 밤을 지내야 했는데(욥 24:7) “그들은 옷이 없어 벗고 다녔다”(עָרֹם הָלְכוּ בְּלִי לְבוּשׁ), 욥 24:10상반)라는 기사가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심한 가난으로 더 이상 저당 잡을 소유물이 없을 경우에는 채무자를 노예로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그는 욥 21:7을 “왜 악인이 살고 번영하며 심히 부요한가?”라고 번역한다. A. Guillaume, *Studies in the Book of Job* (Leiden: Brill, 1968), 104.

53) 레반트(Levant)에서 황소는 폭풍의 신을 상징하며, 우가릿의 서사시(Ugaritic Epic)에서 암소는 아나트(Anat)를 상징하기도 한다. 고대 근동에서 황소와 암소는 양과 염소와 함께 다산과 부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A. Caubet, “Animals in Syro-Palestinian Art” B. J. Collinss, ed., *A History of the Animal World in the Ancient Near East* (Leiden; Boston; Köln: Brill, 2002), 220-222.

54) B. W. Porter, “Assembling the Iron Age Levant: The Archaeology of Communities, Politics, and Imperial Peripheries”, *JAR* 24, (2016), 373-420.

55) O. Borowski, *Agriculture in Iron Age Israel*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87), 51-56.

56) 조한근, “욥기에 나타난 토지 독점에 따른 경제 정의의 공공성 파괴 원인 연구 — 욥기 24:1-12을 중심으로 —”, 『구약논단』 75 (2020. 3), 60-92.

57) 계약법전과 신명기 법전은 가난한 자들의 옷을 저당 잡을 경우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규정한다. 가난한 자들은 상업자금인 아닌 생계를 위해 유일한 걸옷을 담보로 대부분을 받았다(출 22:26-27; 신 24:12-13, 17하반). C. Meyers, *Exodus*, New Cambridge Bible Commentar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2005), 200.

했다(욥 6:27). 더욱이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품을 떠나 채무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욥 24:9상반). 이렇게 채무 노예로 전락한 자들은 가혹한 노동과 굶주림 그리고 목마름에 시달려야 했다(욥 24:10-11).<sup>58)</sup> 이런 최빈곤층의 경제적 상황은 본문에서 제시한 번영을 누리며 한가롭게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악인과 대조를 이룬다. 그러므로 악인이 이룩한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은 결국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여 얻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욥기가 기록될 당시 경제적 불평등이 극대화된 사회였음을 보여준다.

## 5. 신학적 재해석

이제까지 논증한 바와 같이 욥기 21:7-16이 기술하고 있는 악인의 번영에 대한 이해가 단순한 신학적 범주의 신정론에 관한 문제나 인과응보 교리에 대한 논쟁만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즉 욥기가 기술하고 있는 악인에 대한 이해는 당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정치, 경제적 관계의 틀에서 해석해야 한다. 왜냐하면, 욥기 전체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운문(poetry)에서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종교적 행위나 제의적 거룩성을 해석하고, 직접 평가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사회악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명시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선과 악은 법률적 의미를 나타내는 ‘정의’(מִשְׁפָּט)와 윤리적 행위를 뜻하는 ‘공의’(צְדָקָה)로 기술하고 있는데(욥 8:3) 당시 사회법과 윤리적 기준에 대한 실천 유무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욥 22:6-9; 29:12-17). 그러므로 욥도 자신의 무죄에 대한 맹세를 두 가지 기준에서 탄원하는데 첫째로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빼앗지 않는 것(욥 31:9, 13, 21)과 둘째로 빈곤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것이었다(욥 31:16-20). 그러므로 악인에 대해 사회 규범에 근거한 정치, 경제적 해석은 ‘그들의 삶의 자리’(Sitze im Leben)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이다. 이처럼 악인의 삶의 자리는 “왜 악인들이 살아있는가?”라는 수사적 질문에 정치적 의미로 ‘가베루(גַּבְרִי)’와 경제적 의미로 ‘아테쿠(עֲתִיקוּ)’를 사용하여 답하고 있는데, 두 용례를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첫째 ‘가베루(גַּבְרִי)’는 악인의 강한 이미지를 상기시키는데 히브리인들이 전능자와 맺은 계약관계를 파기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 낸다(욥

58) 욥은 자신의 고난을 가혹한 강제 노역의 일종인 ‘군역’(גְּבָא) (욥 7:1상반)과 “그들을 기대하는 노예”(עֲבָדֵי עֵל) (욥 7:2상반)에 비유하여 탄식한다. M. H. Pope, *Job*, 58-59.

21:14-15). 이유는 그들의 변영이 자신들의 능력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인식은 “비록 그의 높이가 하늘에 오를지라도”(אִם-עֲלָה לְשָׁמַיִם וְיֵאָדוֹ)라고 묘사하므로 권력 지향적임을 설명한다(욥 20:6상반). 이러한 악인들의 절대 권력은 사회 법률에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왜곡하는 자로 기술하기도 한다(욥 9:24). 그리고 ‘가난하거나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자들’을 억압하여 착취의 수단으로 삼았는데,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 영향력을 반영한 것이다.<sup>59)</sup> 특히 악인들에 대해 “입의 칼로부터”(מִפִּיָּהֶם מִחֶרֶב, 욥 5:15)<sup>60)</sup>와 “확대하고 버렸다 … 빼앗았다”(욥 20:19) 그리고 “불의한 자의 턱뼈”(욥 29:17상반) 등으로 묘사된 것은 통치의 수단이 잔인했음을 보여준다. 이런 관점에서 본문에 나타난 “세력이 강한가?”(욥 21:7하반)라는 수사적 질문은 정치적으로 당시 사회를 장악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악인들의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둘째 ‘아테쿠(עֲתֵקוּ)’는 악인의 현재 상황에 가장 잘 맞는 용례로 본문 역시 ‘장수와 변영’을 모두 기술하므로 포괄적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악인의 일상적인 삶은 가족들이 번식하고, 아이들이 밖에 나가 춤추는 모습으로 묘사하므로 평안의 상태임을 알 수 있다(욥 21:10-11).<sup>61)</sup>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는 것은 이곳이 절대 안전한 장소임을 의미한다. 그런데 욥기는 “그들에게만 그 땅이 주어졌다 그리고 어떤 나그네도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했다”(욥 15:19)라고 언급하므로 특정인에게만 주어진 배타적 장소인 ‘그 땅이’(הָאָרֶץ) 있음을 설명한다.

물론 농지에 타인이 들어와 농작물이나 기타 물건에 손을 대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했으나 생존을 위해 곡식이나 과일을 채집하는 것은 허용되었다(출 23:11; 레 19:9-10; 신 24:19-21).<sup>62)</sup> 하지만 야생 나귀로 비유된 극빈층

59) 욥기는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용례로 ‘에비온(אֲבִיּוֹן)’과 ‘아니(עֲנִי)’를 사용하고 있는데 모두 경제적 빈곤을 뜻한다. 그리고 사회계층을 의미하는 ‘달(גַּל)’은 ‘천대받는 자’ 혹은 ‘비천한 자’로 해석할 수 있다. 조한근, “욥과 친구들의 대화 속에 나타난 경제적 양극화 논쟁”, 『구약논단』 57 (2015. 9), 38-68.

60) 필자는 ‘입의 칼로부터’가 ‘강한 자의 손으로부터’(מִיַּד הַחֹזֵק)와 함께 평행을 이루어 사용되므로 권력의 억압을 의미하며 불공정한 법정 판결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 조한근, “욥기에 나타난 토지 독점에 따른 경제 정의의 공공성 파괴 원인 연구; 욥기 24:1-12을 중심으로”를 참조하라.

61) K. J. Dell, *The Book of Job as Sceptical Literature*, 52. 신명기는 이와 같은 변영이 하나님과의 계약관계가 지켜질 때 주어지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M. Witte, “Does The Torah Keep Its Promise? Job’s Critical Intertextual Dialogue with Deuteronomy”, K. Dell and W. Kynes, eds., *Reading Job Intertextually* (New York, London: Bloomsbury T&T Clark, 2013), 62.

62) 하틀리는 성결법전에 나타난 추수 법이 지주와 가난한 자 모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J. E. Hartley, *Leviticus*, Word Biblical Commentary 4 (Dallas: Word Books, 1992), 314.

에 속하는 ‘떠돌이들’이(욥 24:5) 악인이 소유한 포도밭에서 열매를 채취하는 행위를 ‘엘라케슈(עֲלָקֶשׁ)’ 용례를 사용하여 약탈 행위로 몰아갔다(욥 24:6하반).<sup>63)</sup> 더욱이 이들이 일반 사회에 접근하는 행위조차 차단하기도 했는데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났다”라는 표현에서 잘 나타난다(욥 30:5하반). 사실 밭과 포도를 따는 곳으로 묘사된 토지는 가난한 자의 농지로 악인들에 의해 강제 수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욥 24:2-6).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농지를 잃고(욥 24:2상반; 30:8하반) 악인들의 노예로 전락하거나(욥 24:9-11) 사막으로 쫓겨나 기근에 시달리며 생명을 겨우 연명하는 자들이었다(욥 24:5; 30:3-7).

결국, 악인들은 갖가지 명목으로 가난한 자들의 토지와 재산을 갈취하여 부를 축적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렸으며 대를 이어 세습까지 되었다(욥 21:8). 본문은 악인들에 대해 “그들의 날들이 그 번영함으로 지나갔다”(בָּלְלוּ יְנַכְלֵן כְּטוֹב יְמֵיהֶם), 욥 21:13상반)라고 묘사하므로 전능자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신정론의 부재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악인이 번영을 누리다가 장수하고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며 자손들에게 세습되는 상황은 당시 경제적 불평등을 안고 있는 극심한 계급사회가 장기간 계속되어 사회적 침식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문에서 기술하고 있는 번영은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귀족들”(욥 3:14)이라는 비유에서도 볼 수 있듯이 권력자들의 탐욕스러운 부정부패의 결과로 봐야 한다. 그러므로 “왜 악인들이 살아있는가?”(מַדּוּעַ רְשָׁעִים יְחִי?)라는 물음은 ‘가베루(גַּבְרִי)’와 ‘아테쿠(עֲתָקוּ)’ 용례를 통해 정치와 경제를 모두 장악하여 사회를 통제하고 권력을 누렸던 자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sup>64)</sup>

## 6. 결론

필자는 욥기 21:7-16을 통해 악인들의 번영을 사회적 관점으로 분석했다. 악인들이 정치적으로는 권력을 통해 당시 사회를 장악했으며,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던 상황을 설명했

63) ‘엘라케슈(עֲלָקֶשׁ)’는 “그들이 약탈했다”로 번역하기도 한다. F. Brown, *The New Brown-Driver-Briggs-Gesenius Hebrew and English Lexicon*, 545b; 조한근, “그 땅에서 쫓겨난 자(בְּנֵי הַמְּדָרְיָן)”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 욥기 30: 1-8을 중심으로 —”에서 재인용.

64) 관료들은 이스라엘에 군주제가 시작될 때부터 압제자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G. A. Yee, “The Bible, the Economy, and the Poor”, *Journal of Religion and Society Supplement* 10 (2014), 4-14.

다. 그런데 욥기는 악인들의 영향력을 불의한 개인이 부를 축적하는 과정을 묘사한 것이 아닌, 당시 공동체가 경험했던 불평등한 정치, 경제적 사회상을 운문의 형식을 빌려 기술한 것이다. 그러므로 “왜 악인들이 살아있는가?”(חַיִּים רָשָׁעִים מָה־לָּהֶם?)라는 질문은 다음과 같이 신학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평화로운 삶으로 묘사된 악인들의 번영은 권력자들에 의해 경제적 인 독점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은 본래 농업을 기반으로 한 자급자족의 경제구조를 가졌으나, 군주제 이후 토지가 국유화되고 관료들이 녹봉 대신 토지의 경작권을 하사받는 수녹토지제<sup>65</sup>)로 바뀌게 된다(삼상 8:14-15). 이러한 변화는 일부 권력자들이 토지를 독점할 수 있게 하였고, 포로 후기에는 더욱 심화되어 가난한 자들의 농지가 권력자들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허다했는데(느 5:4-5) 이와 같은 현상은 욥기 곳곳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므로 “왜 악인이 살아있는가?”라는 질문은 악인의 번영이 경제 독점의 과정에서 발생한 착취의 가혹함에 대한 탄원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악인의 번영은 전통적인 히브리 규범들과 사회법이 작동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본문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길에 대한 지식”을 거부하므로 전통적 규범에 의한 사회법을 무시하는 자들로 묘사된다. 그러므로 이들은 조상들이 정한 토지법에 개의치 않고 가난한 자들의 농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었으며,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적부조의 조항들도 무시할 수 있었다. 이것은 당시 사회가 불평등한 계급사회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것이 영웅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그들이 강해졌다”라는 ‘가베루(גַּבְרָה)’ 동사를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마지막 언설자로 등장하는 엘리후 역시 ‘가난한 자’(לַיִשׁ)와 ‘빈궁한 자’(עָנִי)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악인의 행위에서 비롯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욥 34:28). 또한 범사회적으로 착취의 주체를 ‘랍빔(רַבִּים)’으로 묘사하는데 ‘세력이 있는 자들’을 의미한다. 그런데 ‘רַבִּים’은 ‘정치, 군사적 힘’을 뜻하는 연계 형태로 명사 ‘제로아(זְרוּא)’와 함께 사용되므로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임을 알 수 있다(욥 35:9). 이처럼 악인의 반사회적 행위와 영향력은 사회 규범으로 해결할 수 없는 특수한 계층이었음을 말하고 있으며 욥기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65) 수녹토지제(Prebendal Domain)는 국가의 관료들이 군주로부터 녹봉 대신 토지를 하사받아 경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토지는 엄밀히 말해 군주의 토지로 관료는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질 수 있었다. 쿠틀(R. B. Coote)는 기원전 1000년부터 유다 왕국의 멸망 전까지 이스라엘의 정치체계가 군주제로 변화됨에 따라 토지소유권이 ‘세습제’에서 ‘수녹제’로 현저히 변천하였다고 주장한다. R. B. Coote, *Amos among the Prophets: Composition and Theolog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1), 27-29.



욥기는 악인의 심판을 법률이 아닌 전능자의 영역으로 수용하고 있다.

셋째, “왜 악인들이 살아있는가?”(מָדַעַת הַרְשָׁעִים יְהוָה)라는 구문은 정치 용어인 ‘가베루(גַּבְרָה)’와 경제 상황을 설명한 ‘아테쿠(עֲתָקוּ)’의 총체적 의미에 부합한다. 욥은 악인의 번영을 “왜”(מָדַעַת)라는 의문사를 통해 인과응보 교리와 신정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의문은 알베르츠(R. Alibertz)가 지적했듯이 욥기가 기록될 당시 경제적 상황과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다.<sup>66)</sup> 그런데 본문은 악인의 번영이 대를 이어 세습되는 상황을 기술하므로 불평등이 한세대 이상 지속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불의한 자들의 번영에 대해 욥의 수사적 질문은 정의실현에 대한 사회적 의지나 개혁조치들이 없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악인들은 자신의 권력으로 가난한 자들을 수탈하여 정치와 경제를 장악한 자들이며, 사회적 침식의 원인을 제공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악인은 당시 사회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렸던 관료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주제어>(Keywords)

욥기의 악인들, 경제적 번영, 압제자, 정치 권력, 관료.

the wicked in the Book of Job, economic prosperity, oppressor, political power, bureaucracy.

(투고 일자: 2023년 1월 26일, 심사 일자: 2023년 2월 24일, 게재 확정 일자: 2023년 4월 19일)

---

66) R. Alibertz, *Israel in Exile: The History and Literature of the Sixth Century B.C.E.*, 497-503.

<참고문헌>(References)

- 구자용, “우리가 항상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데, 악한 것을 또한 받지 못하겠느냐?(욥 2:10) - 욥기가 말하는 신정론에 대한 성서신학적 고찰 -”, 「구약논단」 74 (2019. 12), 191-220.
- 안근조, 『지혜 말씀으로 읽는 욥기』, 서울: 한들출판사, 2007.
- 이일레, “가난한 자의 탄원 속에 나타나는 신정론 이해: 시편 10편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82 (2021. 12), 187-214.
- 이일레, “개인 탄원시에 나타나는 가난한 자들의 탄원 연구”, 「성경원문연구」 50 (2022. 4), 37-59.
- 임민균, “고통 속에서 발견하는 희망에 대한 신학적 성찰: 욥기와 몰트만의 신학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 (2020. 9), 638-647.
- 조한근, “그 땅에서 쫓겨난 자(יְהוּדָיִם וְיִשְׂרָאֵלִים)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 욥기 30: 1~8을 중심으로 -”, 「구약논단」 82 (2021. 12), 84-117.
- 조한근, “욥기에 나타난 토지 독점에 따른 경제 정의의 공공성 파괴 원인 연구 - 욥기 24:1-12을 중심으로 -”, 「구약논단」 75 (2020. 3), 60-92.
- 조한근, “욥과 친구들의 대화 속에 나타난 경제적 양극화 논쟁”, 「구약논단」 57 (2015. 9), 38-68.
- Albertz, R., *A History of Israelite Religion in the Old Testament Period: Volume 2: From the Exile to the Maccabees*, J. S. Bowden, tran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4.
- Albertz, R., *Israel in Exile: The History and Literature of the Sixth Century B.C.E.*, D. Green, trans.,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3.
- Albertz, R. and Schmitt, R., *Family and Household Religion in Ancient Israel and the Levant*,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12.
- Balentine, S. E., *Job*, Smyth & Helwys Bible Commentary, Macon, GA: Smyth & Helwys, 2006.
- Balfour, D., “Second-Personal Theodicy: Coming to Know Why God Permits Suffering by Coming to Know God Himself”, *International Journal for Philosophy of Religion* 88:3 (2020), 287-305.
- Boss, J., *Human Consciousness of God in the Book of Job*, New York: T&T Clark, 2010.
- Borowski, O., *Agriculture in Iron Age Israel*,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87.
- Brown, F., *The New Brown-Driver-Briggs-Gesenius Hebrew and English Lexicon*, Peabody, MA: Hendrickson, 1961.

- Burrell, D. B., *Deconstructing Theodicy: Why Job Has Nothing to Say to the Puzzle of Suffering*, Grand Rapids, MI: Brazos Press, 2008.
- Carroll, R. P., *The Book of Jeremiah*, Old Testament Library, London: SCM, 1986.
- Caubet, A., “Animals in Syro-Palestinian Art”, B. J. Collins, ed., *A History of the Animal World in the Ancient Near East*, Leiden; Boston; Köln: Brill, 2002, 211-234.
- Ceresko, A. R., *Job 29-31 in the Light of Northwest Semitic*,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80.
- Christensen, D. L., *Deuteronomy 21:10-34:12*, Word Biblical Commentary 6B, Nashville: Thomas Nelson, 2002.
- Clines, D. J. A., *Job 1-20*, Word Biblical Commentary 17, Dallas, TX: Word Books, 1989.
- Clines, D. J. A., ed., *The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vol. 5,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11.
- Cook, S., “A Reading of Job as a Theatrical Work: Challenging a Retributive Deuteronomistic Theodicy”, *Literature & Aesthetics* 24:2 (2014), 39-62.
- Coote, R. B., *Amos among the Prophets: Composition and Theolog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1.
- Cronauer, P. T., *The Stories about Naboth the Jezreelite: A Source, Composition, and Redaction Investigation of 1 Kings 21 and Passages in 2Kings 9*, New York: T&T Clark, 2005.
- Crenshaw, J. L., “Job, Book of”, D. N. Freedman, ed.,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3, New York: Doubleday, 1992, 858-868.
- Dell, K. J., *The Book of Job as Sceptical Literature*, Berlin; New York: De Gruyter, 1991.
- Finkelstein, L., *The Pharisees: The Sociological Background of Their Faith*, vol. 1,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of America, 1966.
- Fokkelman, J. P., *The Book of Job in Form: A Literary Translation with Commentary*, *Studia Semitica Neerlandica* 58, Leiden; Boston: Brill, 2012.
- Gese, H., “Wisdom Literature in the Persian period”, W. D. Davies and L. Finkelstein,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Judaism*, vol. 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Gray, J., *The Book of Job*,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10.
- Gordis, R., *The Book of Job: Commentary, New Translation, Special Studies*, Moreshet Series 2, New York: The Jewish Theological Seminary of America, 2011.
- Guillaume, A., *Studies in the Book of Job*, Leiden: Brill, 1968.
- Habel, N. C., *The Book of Job*,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5.
- Habel, N. C., "The Role of Elihu in the Design of the Book of Job", W. B. Barrick and J. R. Spencer, eds., *In the Shelter of Elyon*, Sheffield: JSOT Press, 1984.
- Hartley, J. E., *Leviticus*, Word Biblical Commentary 4, Dallas: Word Books, 1992.
- Hartley, J. E., *The Book of Job*,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 Eerdmans, 1988.
- Keil, C. F. and Delitzsch, F., *Job*,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 4, Grand Rapids, MI: Eerdmans, 1976.
- Kivistö, S. and Pihlström, S., "Theodicies as Failures of Recognition", J. G. Hernandez, ed., *Theodicy*, Basel: MDPI, 2018, 97-114.
- Koole, J. L., *Isaiah III: Volume 3 / Isaiah 56-66*, Histor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Leuven: Peeters, 2001.
- Kopfstein, K., "עֲרִי", G. J. Botterweck, H. Ringgren, H.-J. Fabry, eds., *TDOT*, vol. XI, Grand Rapids, MI: Eerdmans, 2001, 376-378.
- Kwon, J. J., *Scribal Culture and Intertextuality: Literary and Historical Relationships between Job and Deutero-Isaiah*, Tübingen: Mohr Siebeck, 2016.
- Kynes, W., *My Psalm Has Turned into Weeping: Job's Dialogue with the Psalms*, Berlin: De Gruyter, 2012.
- Mathewson, D., *Death and Survival in the Book of Job*, New York; London: T&T Clark, 2006.
- Meyers, C., *Exodus*, New Cambridge Bible Commentar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 Newsom, C. A., *The Book of Job: A Contest of Moral Imagina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Pelham, A., *Contested Creations in the Book of Job*, Biblical Interpretation Series 113, Leiden; Boston: Brill, 2012.
- Peterson, M., et al., *Reason & Religious Belief: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Relig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Pope, M. H., *Job*,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82.
- Porter, B. W., “Assembling the Iron Age Levant: The Archaeology of Communities, Politics, and Imperial Peripheries”, *JAR* 24 (2016), 373-420.
- Stump, E., *Aquinas*,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3.
- Van Loon, H., “But Man is Born to Trouble … Metaphors in the Discussion on Hope and Consolation in Job 3-31”, Ph.D. Dissertation,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2017.
- Vicchio, S. J., *The Book of Job: A History of Interpretation and a Commentary*, Eugene, OR: Wipf & Stock, 2020.
- Walton, J. H., *Ancient Israelite Literature in Its Cultural Context: A Survey of Parallels Between Biblical and Ancient Near Eastern Texts*,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1990.
- Watts, J. D. W., *Isaiah 1-33*, Word Biblical Commentary 24, Waco: Word Books, 1985.
- Whybray, R. N.,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Proverbs*, JSOT Supplement Series 168, Sheffield: JSOT Press, 1994.
- Witte, M., “Does The Torah Keep Its Promise? Job’s Critical Intertextual Dialogue with Deuteronomy”, K. Dell and W. Kynes, eds., *Reading Job Intertextually*, New York; London: Bloomsbury T&T Clark, 2013, 54-65.
- Yee, G. A., “The Bible, the Economy, and the Poor”, *Journal of Religion and Society Supplement* 10 (2014), 4-14.

<Abstract>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 on  
“Why Are the Wicked Alive? (מַדּוּעַ רְשָׁעִים יְחִיּוּ)”:  
Centered on Job 21:7-16**

Han-geun Cho  
(The Salvation Army Graduate University)

The book of Job takes as a central theme the *theodic* debate about *the suffering of the innocent and the prosperity of the wicked*, which has been long debated in philosophy and theology. The book, as is well known, consists of the speeches of Job who appealed the suffering of the innocent and of his friends who interpreted human suffering with the doctrine of retribution. Job and his friends have different interpretations about the cause of pain, and presents them in respective questions of ‘Is it the ordeal of the innocent?’ and ‘Is the result the punishment of the wicked?’

The theological logic of his friends recognized suffering as a consequence of sin, and viewed it as a punishment given to the wicked. However, along with the suffering of the innocent, Job raised a realistic question about the prosperity enjoyed by the wicked from a social structural perspective.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was an inseparable so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sufferings of the innocent and the prosperity of the wicked at the time the book of Job was written. In particular, the wicked in the Old Testament are often portrayed as subjects of greed and exploitation, who inflict pain on the poor. However, the book of Job explains the wicked more clearly from a social point of view, and points out that their greed and exploitation was ruthless throughout society. Moreover, the wicked in Job 21 are described as those who live a comfortable life in this world and die a peaceful death (Job 21:13). In other words, the rhetorical question of “Why are the wicked alive?(מַדּוּעַ רְשָׁעִים יְחִיּוּ)/*madua reshayim iechyu*” (Job 21:7) is a criticism of the reality where crimes are exposed but are not subject to any responsibility or punishment. This is very different from the evaluation of evil persons taught in most wisdom literature.

In this respect, readers need to clearly understand and interpret the ‘wicked man’ who provided the social cause of suffering in reading the book of Job. I

would thus like to reinterpret the text through a sociological approach about the wicked, which has not been often dealt with as the subject matter when studying this book.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find political and economic meanings by analyzing how the wicked is understood and structured in the text, and to find out how to the entire book of Job can be accommodated to provide sociological information and to reinterpret it.